

# 이탈리아의 음주문화와 음주대책



조 성 기  
(KARF 경영기획본부장)

## ■ 목 차 ■

1. 주류산업은 이탈리아의 주요산업
2. 음주문화가 음식문화인 이탈리아
3. 이탈리아의 포도 재배사
4. 알코올에 대한 '문제제기'의 시작
5. 정치집회장소에서 사교장으로  
탈바꿈한 술집
6. 북동부 이탈리아가 술꾼의 집결지
7. 술 마실 기회를 박탈당한 이탈리아 여성
8. 이탈리아의 영업직도 과음자
9. 이탈리아 청소년의 74%가 음주경험
10. 청소년도 '와인 한잔 좀 할 알아야 사내  
답다'는 이탈리아
11. 위기에 선 이탈리아의 와인문화
12. 이탈리아의 음주대책

## 1. 주류산업은 이탈리아의 주요산업

이탈리아의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다. 그렇지만 주류산업은 이탈리아의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이다. 이탈리아에서 술의 교역량은 국민총생산의 10%를 차지한다. 그리고 포도밭은 이탈리아 국토의 10%정도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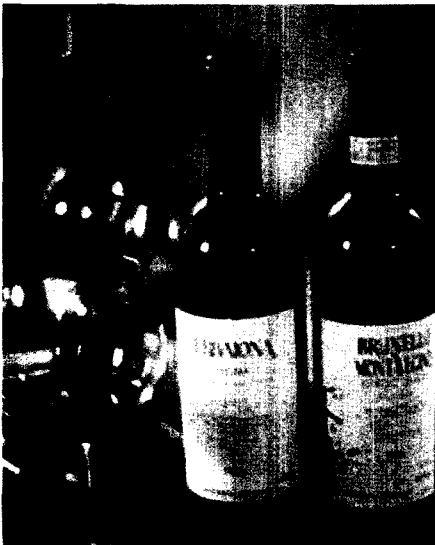
이탈리아의 광대한 포도밭

산업센서스 자료를 보면 거의 14,000개의 기업이 주류산업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의 통계를 보면 1970년대 보다 주류소비가 적다. 술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그렇지만 가족전체 가계예산 중 술 소비량은 2%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생활 속에서의 술의 비중은 거의 일정하다는 의미이다.

술 중 민간이나 공공부문에서 가장 보급률이 높은 것은 와인이다. 포도나무가 이탈리아 땅의 주요 부분을 뒤덮고 있는 한 와인은 이탈리아 문화유산의 기본을 형성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뿌리를 둔 문명을 공유하는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특성이다. 그들이 와인을 마시는 행위와 무관한 생활을 상상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 금주자는 특별한 호기심의 대상이 되곤 하고 "술을 왜 안마시냐?"는 이유를 끊임없이 질문 받게 된다. 이탈리아에서 술을 거절하는 태도는 매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신이여! 술 마시지 않는 사람들로 부터 저를 보호하십시오."라는 금언이 있다.



유명한 몬탈치노의 와인

## 2. 음주문화가 음식문화인 이탈리아

이탈리아 사람들은 순도 높은 알코올은 잘 마시지 않는다. 대부분 와인을 마시고 일부만

다른 술을 마신다. 일반적으로 '술 마시는 사람' 하면 '과음자'를 의미한다.

이탈리아에서 와인은 자양분이 많은 음식으로 이해된다. 과거에는 와인은 저소득층의 영양공급원이었다. 그들은 음식이 적어 와인을 마셔 칼로리를 공급했다. 아직도 그런 습관들이 남아있어 식사를 할 때 이탈리아 인들은 대부분 와인을 정기적으로 마신다.

역사적으로 와인과 증류주는 이탈리아의 약방에서 중요한 구실을 해왔다.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국가들과도 같은 현상이다. 로마시대는 물론이고 르네상스시대를 거치는 기간 중 대부분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알코올 처방이 사용되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와인은 감기치료에 사용되고 있고, 1등급 와인은 질병에서 회복되는 사람들이나 노인들에게 적정량 마시도록 권장되고 있다. 더욱이 의사들은 관상동맥질환을 예방하는 데에 적정량의 와인이 좋다고 과학적인 증거를 대면서 권유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음주는 사회생활과 관계가 있다. 와인은 태어나고, 결혼하고, 군대갈 때와 같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의례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가시간,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필수품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취하는 행위에 대해 칭찬을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비난을 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이탈리아에도 술을 남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과음의 부정적인 결과를 방관하는 문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자발적인 통제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는 곳이 이탈리아이기도 하다.

먼저 이탈리아에서도 술의 남용은 일정하게 통제된다. 성인식을 통해 통과 의례 시 남용을 못하도록 권장된다. 청년이 징병통지서를 받을 때나 결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이다. 또한 식사 중의 와인도 통제되는 측면이 있다. 이는

특히 위장이 비어있는 식전에 술을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식사중의 음주량도 통제를 받고 있다. 또한 과음이 낳는 부정적인 효과를 통제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물론 음주를 조절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통제가 행해진다. 이탈리아 사회에서 과음은 낙인찍히는 일은 아니지만 술을 스스로 통제 못하는 사람들은 비난의 대상이 된다. 술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술버릇이 나쁜 사람들로 치부된다. 술을 남용하게 되면 자신의 건강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가치를 손상하므로 낙인은 당연시 된다.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보면 술을 지배하지 못하는 남성은 진정한 남성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술을 알맞게 조절하지 못하는 과음자들은 술을 마시는 사회관계에서 도태되므로 근본적으로 그 자체로서 허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탈리아인들의 회식과 와인

일반 주류와 와인이 이탈리아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은 두 가지 현상을 예고한다. 하나는 이탈리아인들이 알코올 음료를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하고 있어 과음을 하는 행위에 대해 그럴 수 있는 일이라는 평판을 해 버린다. 또 하나는 술로 인해 신체적 손상이 심하거나 심리적인 의존상태라는 것이 명백해

지기 전까지는 알코올 남용에 대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반응들을 보이는 것이다.

이탈리아에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와 알코올 의존증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금 놀랄만한 일로 생각되지만 이탈리아의 음주문화를 생각해 보면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을 곧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공식통계는 과다추계 되거나 과소추계 되고 있고 기준이 자꾸 바뀌고 있어서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러므로 알코올 의존증이 증가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도 정확하지 않고 술 소비가 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가 없다. 분명한 것은 알코올 남용이 사회적으로 논의의 대상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날의 이탈리아에서 과음은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문제이지 계층과 관련된 현상이 아니다. 술 문제는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에 관계없이 광범위한 문제라고 보면 틀리지 않는다.

이탈리아 국립연구원은 프랑스 알코올 전문기관의 추계방법을 채택하여 1900년대에 국민들의 간경변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 3. 이탈리아의 포도 재배사

포도재배는 기원전 3000년부터 지중해 연안에서 시작되었고 메소포타미아지방에서 경작되었다. 수메르인의 영웅 길가메시(Gilgamesh)의 서사시에 보면 와인은 신성에 접근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기원전 2000년경 미노안(Minoan) 시대에 이미 와인 저장탱크가 사용되었다는 흔적이 시라쿠스 근방의 고대의 무덤에서 발견되었다. 시실리섬에서의 와인생산은 그리스인들이 에게해를 건너 그 섬을 식민지화하기 이전부터

일반적이었다. 시실리섬의 뜻이 바로 '와인의 어머니'이다.

시실리에 설치된 그리스의 식민지와 남부 이탈리아 지방에서 기원전 800년 경 포도재배법이 로마로 전파되었다고 한다. 사실 북부 이탈리아의 에트루리아인들도 로마시대 이전부터 와인재배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트루리아인들은 지금 투스카니와 라지오라고 불리는 지방이다. 에트루리아인들은 자가 소비를 위해서 와인을 생산했고 남은 양은 북부이탈리아 전반과 동부 프랑스 지방인 갈리아로 수출했다고 한다.

자료가 많지 않아 불확실하지만 에트루리아인들은 다방면에서 로마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포도(vinum)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인 오이노스(oinos)가 아니라 에트루리아어인 비노(vino)에서 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에트루리아인들과는 달리 초기의 로마인들은 와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공화국의 도덕기준에 따르면 음주는 약한 성격과 연관이 있고 로마시민의 존엄을 낮추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기원전 500년경의 법에 따르면 임신여성의 음주는 태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금지되었다. 현대에 태아 알코올증후군에 대한 예방행위가 이미 로마시대에 있었다는 놀랄만한 일이 아닌가 한다.

음주에 대한 태도가 크게 변화한 것은 카르타고를 패배시킨 이후 로마가 지중해의 패권을 잡으면서 부터이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작가인 카토(Cato)는 유명한 농서에서 다른 곡물 보다 포도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이탈리아에서 와인은 부유한 사람들의 식탁에서 값진 음료로 사용되었고 포도재배농가는 이윤이 제법 남는 기업으로 되었다. 서기 100년 쯤에 쓴 플리니우스(Pliny)의 역사책에는

이탈리아에서 품질 좋은 와인이 생산되게 된 것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라고 하였다. 로마와 나폴리 사이는 포도산지가 집중되었고 폼페이와 오스티아가 주요 항구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와인 생산을 장려한 아우구스투스의 상

이 시대에 이탈리아에서 와인생산을 통제하는 첫 시도가 있었다고 한다. 역시 술 생산이 통제되는 시기는 재난의 시기였다. 서기 79년에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하여 폼페이가 파괴되었다. 시민 대부분이 죽었고 주변의 포도밭은 잿더미가 되었던 것이다.



도미티안황제가 포도밭을 없애는 구실이 된 재난의 현장, 폼페이

로마의 와인공급이 크게 감소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밀 경작지를 급히 포도밭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그러자 20년이 못되어 포도가 과잉생산되었고 밀과 다른 곡물의 부족현상이 나타났다. 황제 도미티안은 새로운 포도밭을 만드는 것을 금지했고 변경의 포도밭 절반을 없앨 것을 명했다고 한다.

사실 로마인들은 그리스인들보다는 와인을 상징이나 신비적 측면에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로마인들은 와인의 경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 종교, 문학, 예술에서도 역시 중요시하고 있다. 로마인들에게 와인은 종교적 공물의 하나이고, 문학작품이나 조형물들은 음주의 신성한 기쁨을 묘사하는 대상이었다.

로마제국이 번창해지자 와인은 전유럽으로 파급되었다. 로마인들은 북아프리카, 스페인, 포르투갈, 남부 프랑스 등지에서 포도밭을 경작하였다. 로마제국이 기올자 포도경작도 기올었다. 그 이유는 바바리아인이 침입해 왔다가 정치·행정적 혼란이 원인만은 아니었다. 국세가 기올자 세금을 올렸고 세금이 오르지주들은 포도재배를 줄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행동이 늘어나자 서기 300년 경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포도밭을 파괴한 자들을 사형에 처하기도 하였다.

포도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중세에는 와인이 문화와 사회의 중심이 되었다. 부분적이지만 와인은 성찬식 등 그리스도교의 의식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수도원은 교회에서 사용할 포도를 경작하는 곳이기도 했지만 유럽 전역에 포도재배 기술을 확산하는 중심이었다. 이탈리아의 도심의 거리나 길의 명칭에 포도의 의미가 들어간 곳이 매우 많다. 비그노제, 비노지, 비나조리, 비노제티, 비그나, 베치야, 젤라 비그나 누오바 등이 그것이다.

#### 4. 알코올에 대한 '문제제기'의 시작

기원전 1750년 함무라비 법전의 조항에서 다룬 이후 주류의 부정적인 영향은 이탈리아에서는 1800년대 후반까지 일반적인 관심사항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1700년대 말에 제한적이었지만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다. 1774년 의학전문지에 학자들이 과음의 결과에 대한 경고를 한 바 있다. 즉, 태아에 미치는 영향, 신생아와 노인들에 대한 위험 그것이다. 그렇지만 1800대 후반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알코올 소비와 남용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먼저 알코올은 소금과 밀가루와 마찬가지로 과세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1880년 경 증류주에 대해 과세하여 걷은 수입이 전체 국가의 연간과세액의 10%가 넘는 적도 있었다. 그런데 1880년대에 의사와 법학자들이 알코올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알코올에 대해 문제 지향적으로 관점을 바꾼 것이다. 의사는 의학적 문제를 제기하였고, 법학자들은 알코올 남용을 안녕과 질서에 관한 문제로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탈리아 정부는 알코올 생산에 대해 건강과 관련된 측면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저품질 와인의 유해효과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그렇지만 학계에서는 논쟁이 계속되었다. 학계에서 동의한 것은 알코올 남용과 빈곤이 상호관련이 있다거나 알코올이 신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1882년에 이탈리아의 사회과학자인 코란자니는 "알코올은 우리가 상속받고, 배워 범죄나 부적합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덕적 힘을 완전히 제거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범죄가 알코올 의존증의 원인이 되거나 그 결과라는 것에 대

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 즉, 당시의 논쟁은 알코올 남용이 빈곤과 범죄의 원인 여부에 대해서였다.

이러한 논쟁은 빈곤의 뒤에 범죄와 알코올 의존증과 같은 사회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패배로 끝났다. 그들의 주장은 사회기구들이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한편의 사람들은 물질생활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곤란을 가지는 사람들은 동물적 본능을 추구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알코올이 범죄와 빈곤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주장한 셈이었다. 즉, 사회문제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의 문제인가? 술이 문제인가?”라는 논쟁이 백여 년전 이탈리아에 있었던 것이다.

알코올과 범죄와의 관계는 오랜 쟁점이 되지는 않았다. 1881년 이탈리아의 형법은 만취의 다양한 형태를 범죄시하였지만 알코올 남용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는 보건에 대한 해석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즉, 점차 노동조합의 힘이 커지자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나아졌고 술이 저소득층을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생활이 나아지자 알코올과 빈곤의 관계를 따지는 일이 사라졌고 다만 과음과 건강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해졌다.

밀라노를 중심으로 몇 년 동안 절주운동이 알코올 남용을 주제로 대중의 관심을 끈 적이 있다. 그렇지만 결과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사회당과 당수인 투라티가 개입을 했고 1913년에 알코올제약법이 통과되었지만 주류에 대한 접근성이 심각하게 줄어들지는 않았다. 판매점허가제와 판매연령제한 등 몇 가지 통제가 고려되었지만 소매점들이 전국적으로 강력히 반발하였다. 그래서인지 이탈리아에서 법적으로 심각하게 통제를 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파시즘이 집권을 했을 때 큰 변화가 있었다.

이 때 알코올 남용은 다시 범죄적인 문제로 거론되었다. 그런데 사실 무솔리니의 주요 관심사는 정치적인 것이었지 알코올 그 자체는 아니었다. 노동자들의 뿔이 체제에 도전하는 노동자계층의 집회장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문제시 하였던 것이다.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뿔은 실업자들에게 직업을 소개하는 '노동청'이나 대화의 장소가 되는 '보험국'의 구실을 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논의나 활동의 장소가 된다. 수천개의 뿔을 달아버리면 정부를 전복하려는 활동을 통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은 일리 있는 일이다.



정치적 이유로 술집을 폐쇄한 무솔리니

## 5. 정치집회장소에서 사교장으로 탈바꿈한 술집

1990년에 이탈리아의 순알코올 소비량은 9리터였다. 이는 1980년 보다 1리터 적은 양이므로 알코올 소비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자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동구권을 제외한 유럽국가들 중에서 4위 정도가 된

다. 스페인은 11.7리터나 된다. 오늘날 이탈리아인 들은 와인을 한해에 평균 60리터를 마신다. 학자들은 2000년까지는 45리터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그때 쯤 되면 1인당 순알코올 소비량은 7.5리터 쯤 될 것으로 관망하고 있다. 아직 필자가 그 자료를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추세는 대체로 적중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탈리아에서 펍(Pub)이 중요한 구실을 했듯이 오늘날에는 바(Bar)가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렇지만 바의 역할은 전처럼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곳도 아니고 직업을 구하는 장소도 아니다. 이제 이탈리아에서도 술집은 여가시간을 보내거나 음악을 듣거나 TV를 보거나 카드를 하거나 전자게임을 하는 장소가 된지 오래다. 미국의 싸롱이나 프랑스의 카바레와 같이 이탈리아의 펍은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지만 바는 오늘날 남성과 여성 모두로 구성된 단골손님들의 사교장소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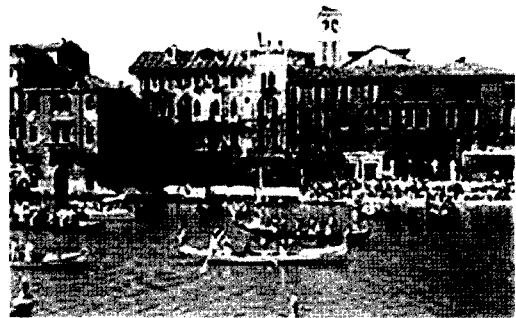
술 소비량의 감소를 단순히 술 마시는 이유의 변화에서 찾기는 어렵지만 그저 즐기려고 마시는 음주는 정치적 토론을 하는 등 특정목적 을 가지고 술을 마실 때에 비해 양적으로 적게 된다는 것은 받아들일만한 가설이라고 할 수 있겠다.

## 6. 북동부 이탈리아가 술꾼의 집결지

이탈리아를 중부, 북동부, 북서부, 남부 등 4군데로 나누어 보면 북동부 지역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신다. 베네토, 프리우리, 베네치아 등의 지역은 전통적으로 많이 마시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남부지방과 도서지방은 항상 평균이하의 음주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를 밝혀보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만족할만

한 이유를 찾기는 어려웠다. 남부지방은 특히 이탈리아 최고의 포도산지가 있는 지방이므로 더욱 원인규명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남부지방이 산업화가 덜 이루어진



술꾼이 많은 베네치아

점은 주목할만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음주량과 인구와의 관계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인구 20,000명 이하의 도시에서 술 소비량이 많았던 것도 재미있는 정보가 아닌가 한다. 남부에서 생산된 와인의 알코올 농도가 높다는 것은 매일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할 것이다. 또한 남부에서는 여성들의 음주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엄격하였다고 한다. 즉, 산업화와 여가의 정도, 알코올의 농도, 규범 등이 술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7. 술 마실 기회를 박탈당한 이탈리아 여성

1890년대에 이탈리아의 정신과 의사인 제르보그리오(Zerboglio)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여성은 남성보다 덜 마신다. 여성은 가족과의 관계에 생활의 중심을 두고 있고, 행동의 제약이 있으며, 수줍음을 많이 타고... 그래서 남용을 잘 하지 않는다."

그러나 많지는 않지만 오늘날의 이탈리아 여성의 음주패턴에 관한 문헌들을 보면 그 이전

의 주장과는 다르다. 이에 이탈리아 여성들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탈리아 여성들은 남성들이 세워놓은 장벽을 극복할 수 있었고 전보다 자유를 더 얻게 되었다. 이탈리아의 알코올 연구자들도 술 소비에서 성차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아직 남성보다 덜 마시는 것은 분명하고 앞으로도 그러하겠지만 분위기는 크게 변화하였다.

이탈리아의 전통사회에서는 음주에서 성차별은 분명히 있었다. 여성들은 혼례식과 같이 특별한 때에 마시기는 하였지만 일상에서 음주를 즐긴다는 반응은 거의 보일 수조차 없었다. 취한 여성은 취한 남성 보다 아주 나쁘게 평가되었다. 물론 여성이 취한다는 상황은 자연스럽지 못한 특이한 일로 치부되었다.

농사일을 하는 여성이나 높은 계층의 여성이나 모두 술로부터 그들을 멀리 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었다. 첫째, 술 자체가 남성의 전유물이었다. 여성을 술로부터 격리시킨다는 것은 남성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전에는 술을 가진 자가 신성한 자이거나 힘이 있는 자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남성들은 식량을 보충하거나 갈증을 다스릴 때, 노동의 현장에서 음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셋째, 만취하게 되면 여성을 남성이 성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생각되어 졌었다. 당초의 사고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넷째, 여성이 노동을 할 경우에도 여성은 가족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었다. 가사일도 돌보아야 하므로 시간이 없었다. 이탈리아에서도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술을 여성에게 친화적이기 어려운 것이었던 것이다.

즉, 이탈리아는 여성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 여성들은 알코올을 두려움과 체념의 감정을 가지고 접하기도 하였다. 특히 농업 종사자들

의 경우 남성들은 술을 마시고 여성에게 정신적 심리적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도 남성은 그래도 된다는 핑계가 되었다. 남성의 주량은 사내다움을 시사하는 것이었지만 여성들의 주량은 문제가 되었다. 이탈리아 여성들에게는 술을 많이 마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 8. 이탈리아의 영업직도 과음자

이탈리아에서도 산업사회 이전에 육체노동이 심한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셨다. 미숙련 노동자나 일용직 노동자들은 달랐다. 직업별로 음주패턴이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일반적인 펍의 손님들은 상인들이나 판매직 노동자들이었다. 펍의 손님들은 대부분이 과음자들이어서 악명이 높았다. 축제날이나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 농업종사자들은 펍에 잘 가지 않았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직업별로 음주습관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최근의 조사 자료를 보면 바텐더, 부동산 중개업자들, 영업직 종사자들이 평균 이상 술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계 어디를 가나 영업직과 상거래가 직업인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신다. 과연 술대접 말고 영업을 잘할 수 있는 대안은 어디에도 없는 것일까?

## 9. 이탈리아의 청소년의 74%가 음주경험

이탈리아의 청소년 음주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문제가 어떠한가에 대한 정보는 불명확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자료가 있더라도 특정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조사가 있는 정도였다.

1992년에 와서야 15세 - 24세의 청소년 전국 조사가 실시되었다. 지난 3개월간의 음주경험



을 묻는 질문에 26%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대답하여 상당수가 음주경험이 있는 것이었다. 남성은 84%이었고, 여성은 64%이었다. 남성 청소년이 여성들에 비해 과음자가 많았고 다양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이가 들수록 술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8세가 넘어서면 그 양이 급증하는 것이었다. 이탈리아도 대학생 음주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18세 이상의 음주자는 남성의 경우 87%, 여성의 경우 67%였다.

청소년 음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북동부 지역의 청소년이 와인을 많이 마시고 있었다. 남부의 청소년도 술을 제법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대부분 맥주를 선호하고 있었다. 와인과 고도주의 소비는 농촌보다 도시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었다. 이러한 지역별 차이는 지역별 음주문화의 전통적인 현상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음주문화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도시에서 왜 술 소비량이 많을까? 아마 예나 제나 도시주민이 농촌주민보다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집에서 와인을 가장 자주 마신다. 맥주는 포래들 끼리 모여서 밖에서 많이 마신다. 주종은 직업 유형과 식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탈리아인들은 술 자체가 아니라 사람과 어울리기 위해서나 식사를 더 잘 하기위해 술을 마신다는 것이다.

## 10. 청소년도 '와인 한잔 짬할 알아야 사내답다'는 이탈리아

이탈리아인들은 10대 초반에 음주를 경험한다. 가족이나 포래집단은 이탈리아인들이 사회화되는 대상이 된다. 과거에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변했다.

포도재배지역에서는 와인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어린아이도 자주 와인을 마시도록 권유를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어른들이 모인 의식에서 어린이들에게 막걸리를 권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탈리아도 이러한 현상은 마찬가지로 보이면 된다. 이탈리아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술을 주는 것에 반대를 한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아버지들은 적당한 양의 술이 자식들을 잘 성장하게 하고 '진정한 사나이'가 되도록 한다고 믿는다.

와인이 적은 지역의 여성이나 어린이들은 술을 마실 기회가 적었다. 오늘날 이러한 차이는 사라지고 있다. 어차피 농가가 줄어들고, 술은 공산품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소년들에게 가족이 술을 권하는 것은 이탈리아에서 일반적인 일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음복을 권하는 모습이 이탈리아에서도 건강이나 사내다움을 이유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술 마시는 이탈리아 청소년들이 최초로 술을 마신 연령은 25% 정도는 13세 이전에, 75% 정도는 13세-18세 사이라고 한다. 와인을 마시는 것은 가족들이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지만 이탈리아 청소년들의 책임도 크다. 맥주나 증류주를 같이 마시는 대상은 주로 같은 또래들이기 때문이다. 와인은 식사와 함께 마시므로 가족이 개입되지만 맥주나 증류주는 다른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 마시게 된다. 그러니 가족과는 대체로 무관하게 되는 것이다.

## 11. 위기에 선 이탈리아의 와인문화

음주와 알코올 남용에 대한 문제는 이탈리아에서도 점차 관심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금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운전이나 간경변 등 간질환 등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의 크기에 대해 매스컴이나 보건의료 집단들이 문제를 삼고 있다.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지만 이탈리아의 전문가들은 적어도 한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0명이 넘고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30,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도 선별도구를 무엇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50만명에서 수백만명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이탈리아 인구가 6천만명 정도라고 하면 인구의 상당한 부분이 알코올 의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된다.

정확한 자료가 없고 데이터가 믿을만 하지 않다고들 하지만 많은 이탈리아인들이 알코올 남용을 하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다.

또한 이탈리아인들의 음주는 종교, 영양, 사회관계, 오락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남용자를 선별하기 어렵고, 뚜렷한 문제인식도 시기상조이고, 치료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음주가 개인이나 사회적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분위기이다. 술 중 와인이 그러한 인정을 받는 것은 이탈리아에서는 아주 당연한 일이다.

술이 가지고 있는 영양과 치료에 대한 효력은 오늘날의 이탈리아 사회에서 중요성을 상실했다. 그렇지만 술의 사교적 효능에는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 와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고 과거와의 연속성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상징적인 가치를 갖는 물질로 인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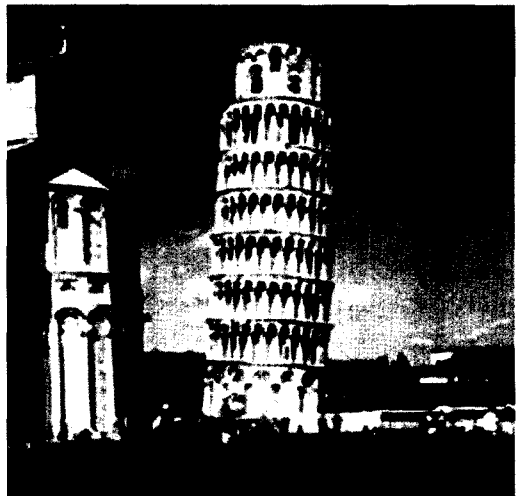
이탈리아의 문화전문가들은 알코올 문제가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서 점차 심각하게 대두된다 하더라도 와인문화는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1980년대에 와인의 수

요가 급격히 감소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탈리아인들의 작업시간표가 변화하고 영양섭취 계획이 변화한 것이 와인의 소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층의 맥주소비 증가도 위협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점심시간이 짧아지고, 이탈리아의 정식 식사가 줄어들고 있다. "가볍게 먹고,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새로운 시대에 과연 이탈리아의 와인이 과거와 같은 영향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감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탈리아의 술 문화는 음식문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를 더욱 잘 설명해 준다.

## 12. 이탈리아의 음주대책

이탈리아의 음주대책은 사실 알코올 문제에 앞서가고 있는 선진제국에 비해 매우 뒤쳐져 있다. 이는 이탈리아인들의 음주문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94년 보건성의 조사 결과를 보면 알코올 관련 규제나 예방,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진 이유?

치료, 재활 활동 등에 대해 법률이나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탈리아 정부가 문제에는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1990년에 음주운전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기기를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음주운전을 퇴치하기 위해 속도제한, 음주운전 제한, 안전벨트 착용과 같은 광고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같은 해에 정부는 '알코올의존증 센터'를 보건성내에 설치했다. 그리고 알코올 문제를 예방하고 관련된 연구 조사가 공식적으로 실시되고 연차보고서도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1992년에 이탈리아도 WHO의 알코올행동계획에 의거 술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와 움직임에 대응하여 주류업계도 1990년에 알코올 사회문제센터를 설립하고 소비, 건강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정보수집에 나섰다. 와인협회와 증류주협회가 함께 공동의 관심사로 대응에 나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다른 민간단체들은 1991년에 '미성년자 음주 감시센터'를 설치하고 청소년 음주행태, 책임

있는 음주문화, 알코올 오남용, 알코올 정책제안 등의 활동에 나섰다. 1990년대에 와서야 이탈리아도 정부와 민간이 건전음주문화 조성과 문제를 줄이는 활동에 나선 것이다.

이탈리아 사회는 술 소비의 패턴을 변화시킬만한 큰 경제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와인이 사교를 위한 명주로 인정받고 있지만 바(Bar)나 파티에서는 고도주나 맥주의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고도주는 특히 수입증류주가 애호되고 있다고 한다. 이탈리아인들의 주류취향도 바뀌고 있는 것이다. 술로 인한 문제나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캠페인과 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주종간 경쟁도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다.

이탈리아의 와인문화는 그동안 술로 인한 건강을 지키는 데에 기여한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이 된다. 음식과 함께 친척이나 친지들과 즐기면서 마셨으니 말이다. 음주량 자체는 감소하고 있지만 이탈리아의 음주문화는 그다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인들이 새로운 음주문화와 음주문제에 시달리지 않고 과거를 잘 보존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관망해 보아야 할 것 같다.

My strong point, if I have a strong point, is performance. I always do more than I say. I always produce more than I promise.

만약 나에게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추진력이다. 나는 언제나 말보다 실천을 더 많이 한다. 나는 언제나 내가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이 이루어 낸다.

- Richard M. Nixon -

## 唐詩감상 / 崔塗의 詩

## 제야에 (除夜有懷)

멀고 험한 三巴의 길  
 나그네는 외로아라.  
 먼 山에 눈 쌓인 밤  
 촛불 앞에 앉았나니.

骨肉은 차츰 멀어만 가고  
 下人들만 자꾸 가까워 진다.  
 떠도는 이 시름을 어이 견디리  
 더구나 내일이면 새해이거니.

## 除夜有懷

迢遞三巴路  
 羈危萬里身  
 亂山殘雪夜  
 孤獨異鄉人

漸與骨肉猿  
 轉於僮口親  
 那堪止漂泊  
 明日歲華新